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 갓의 인식에 관한 연구

김 순 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Korean Top Hat, the *Gat*, from the Late 19th to the Early 20th Century

Soon-Young Kim

Lecture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4. 7. 2, 심사(수정)일: 2014. 7. 15, 게재 확정일: 2014. 9. 2)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gat*, the Korean top hat for men, to understand the diverse meanings behind the hat. During the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the *Joseon* Dynasty (1392~ 1910) was plunged into confusion and turmoil as it was nearing its end. It was a period of drastic changes in regards to philosophy and ideology. To that end, the hats of society mirrored such changing times, as well as the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of *Joseon's* internal subject entities and external observers.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relevant documents, this study takes a multi-faceted approach to the process in which traditional Korean hats, which were once a symbol of the *Joseon* civilization, became reduced to an outdated object, as well as observing the awareness and attitudes of the entities involved in such a pivotal process.

Key words: Confucianism(유교), *gat*(갓), Japanese colonialism(일본 식민주의),
Joseon civilization(조선 문명), symbolic meaning(상징적 의미), *yangban* class(양반 계급)

I. 서론

조선은 1392년 개국 이후부터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 이전까지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교적 통치 이념을 근간으로 국가 체제를 운영해 왔으며 유교적 사상과 교리에 의해 사회 질서를 유지해 온 왕조 국가이다.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유교 사상과 교리는 조선인들이 의복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고 볼 수 있다. 조선 말기의 유학자 최익현(1833~1906)은 조선의 의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체로 의복이란, 선왕들이 오랑캐와 중화를 분별하고 귀천을 나타내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복 제도가 비록 다 옛 법에 맞지는 않으나 이는 중화 문물이 보존된 바이며 우리나라 풍속을 볼 수 있는 바로서 선왕들이나 선정(先正)들이 일찍이 강론하여 밝혀 준수해 온 것이며 천하의 만국들이 일찍이 우리러 사모하며 찬탄해 온 것이다.”¹⁾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의복은 첫째, 오랑캐와 중화를 구별하는 수단이며 둘째, 신분 귀천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즉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옷은 신체 보호와 장식의 수단이기 이전에 어떠한 이상과 신념의 표현 도구로서 더 큰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갓은 조선시대의 중인과 양반 계급, 즉 상류층 성인 남자의 모자이다. “의관(衣冠)을 정제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갓은 머리에 쓰는 모자의 일종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의복과 함께 바르게 착용하여 외모를 완성하는 중요한 복식 품목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의복에 부여했던 이상과 신념은 갓에도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편 관념에 의해 모자는 오히려 옷보다 더 강력하고 집약적인 의미체로 기능했을 가능성도 있다.

19세기 말~20세기 초는 조선 왕조가 대한 제국(1897~1910)으로 국명을 개정하고 근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 개혁을 단행했던 시기이다. 복식사적으로는 복장 개혁과 단발령을 통해 기존의 의복 관습을 간소화하고 근대적 표준을 새롭게 마련

하고자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94년 갑오개혁에서 법적으로 신분 제도가 폐지된 이후²⁾ 기존의 중인이거나 양반 계급 이외의 신분층도 갓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갑오개혁은 갓의 신분 상징적 의미 변화를 초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5년 12월 을미개혁(즉, 제3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단발령³⁾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를 기점으로 확대된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 강화⁴⁾ 역시 갓의 전통적 의미를 또 다른 방향으로 변질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의 개화 정부가 지향했던 근대화의 열망과 일본 정부의 한반도 지배권 강화 야욕은 어떤 식으로든 조선 전통 복식의 의미 변화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갓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본 연구는 19세기 말~20세기 초 갓의 의미 변화를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갓의 의미 변화가 조선 지식인과 조선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에까지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갓은 조선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상당수의 유물이 국내외의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⁵⁾ 이처럼 갓이 국내의 박물관 뿐 만 아니라 국외의 박물관에도 다수 소장되어 있는 것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을 방문했던 많은 서양인들이 한국의 모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수집하여 본국으로 가져간 결과이다. 당시 모자 수집의 정황에 대해서는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했던 Lowell과 Carles의 서술을 참고할 만하다. Lowell은 “서양의 박물관이 체계적인 모자 수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면 조선은 아마도 수집가의 천국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⁶⁾라고 했고, Carles는 “한국적인 것으로 가져갈 가치가 있는 것 중 가장 매력적인 것은 귀부인들이 쓰는 일종의 모자다.”⁷⁾라고 함으로써 그들이 한국의 모자 수집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려준다. 서양인들의 한국 모자 수집품 가운데에는 갓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서양인들이 왜 조선의 갓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수집하여 본국으로 가져갔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갓은 실용적 도구이기 보다는 신분 상징물 또는 유교적 이상과 신념의 표현 도구였다. 또한 19세기 말~20세기 초 격변의 시

대 상황에서 또 다른 의미들로 변질되어 갔던 시대의 상징물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이러한 갓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갓에 관심을 가졌던 외국인들에게 갓은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닌 물건이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본 연구는 19세기 말~20세기 초 갓을 둘러싼 내부의 행위 주체들과 외부의 관찰자들 간에 갓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이 어떠한 성격의 것들이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조선인과 외국인의 상이한 인식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표면적 인식 이면에 내재된 정치적인 성향도 일부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선의 갓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흑립에 관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연구로서 이은희⁸⁾의 연구가 있다. 그는 조선시대 흑립의 종류와 특징, 흑립의 제작 기법과 형태 변천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장경희⁹⁾는 한국 갓의 유래와 변천, 갓일 장인의 재료와 제작 도구, 갓의 종류와 제작 과정 등을 연구했으며, 박형박¹⁰⁾은 갓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고 갓을 실제로 제작하는 연구를 행하였다. 개화기 이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모자 연구로서 김이든¹¹⁾은 개항 이후 남자의 전통 모자와 서양식 모자 종류를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 및 남자 모자의 변화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하였고, 최재영¹²⁾은 서양인들이 조선 모자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점검하고 그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본 것 등을 찾아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조선 말기 남자 관모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갓의 의미에 대한 해석적 연구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의 갓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형태 분석과 사용 특성에 관한 실증적 논의를 강조해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갓'이라는 하나의 '물질적 대상'이 역사적, 시대적 맥락에서 다양한 '주체'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가에 대해 '해석적 논의'를 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통하여 전통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모자였으며 구한말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도 가장 한국적인 풍물로 인식되었던 갓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확대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말~20세기 초 갓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18~19세기 조선 유학자들의 갓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19세기 말 이후 갓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들의 갓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18세기 말~20세기 초에 간행된, 갓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여러 종류의 문헌들을 조사한 문헌적 연구이다.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의복과 갓에 관한 조선 유학자들의 전통적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이덕무(1741~1793)의 『청장관전서』, 최익현(1833~1906)의 『면암집』, 황현(1855~1910)의 『매천야록』과 같은 18~19세기 유학자들의 개인 문집을 살펴보았다. 신분에 따른 갓 사용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국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대전후속록』 등 조선시대의 법전을 살펴보았다. 19세기 말의 복장개혁과 갓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종실록』, 『관보(官報)』 등의 관찬 자료와 『독립신문』, 『만세보』, 『매일신보』, 『개벽』 등의 근대신문 잡지를 참조하였다.

19세기 말~20세기 초 갓에 대한 서양인들의 인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이 시기 갓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영국인과 미국인의 여행기를 조사하였다. 영국은 19세기 말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였으며 미국은 대한제국 정부가 끝까지 의지했던 서구 열강이었던 만큼 영미권 저자들의 여행기에서 갓의 서술 내용을 분석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총 11종류이며 여행기의 서명, 저자, 방문기간, 방문동기 등은 <표 1>¹³⁾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에 이용된 여행기의 서명, 저자, 방문기간, 방문동기

출판 연도	서명	저자명	저자 국적	저자직업	방문기간	방문동기
1886	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Percival Lowell	미국	천문학자, 외교고문	1883년 12월 ~1884년 3월 (4개월 체류)	1883년 미국 보빙사 일행의 고문을 역임한 이후 고종의 초청으로 내한하여 여행함
1888	Life in Corea	W. R. Carles	영국	외교관, 동양전문가 (왕립지리학회 회원)	1884~1885년 (18개월 체류)	1884년 조선과 영국의 통상조약 이후 서울주재 영국대리영사로 근무
1892	Korea from its capital: with a chapter on missions	George W. Gilmore	미국	교육자	1886년 7월 ~1894년 (육영공원 폐교시까지)	육영공원 교사로 초청됨
1894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E. J. Cavendish	영국	장교	1891년 (몇 주간 체류)	호랑이 등 짐승 사냥 및 백두산 등정
1894	Problems of the Far East, Japan-Korea-China	George N. Curzon	영국	정치가, 한국방문 당시 인도성 차관 역임	1892년	아시아의 문제점과 그것이 인도에 가지는 함의를 연구하기 위한 정치적 탐사
1895	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A. Henry Savage-Landor	영국	화가	1891년 (6~7개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관심
1897	Every-day life in Korea	Daniel L. Gifford	미국	선교사, 교육자	1888~1900년	새문안 교회, 언더우드 학당, 육영공원 등에서 선교와 교육
1897	Korea and her neighbors	Isabella Bird Bishop	영국	여행가	1894~1897년 (4차례 방문, 11개월 체류)	오지 탐험
1904	Manchuria and Korea	H. J. Whigham	영국	작가, 아마추어 골프선수, 종근기자 (1898~1904)	1901년 6월 만주 도착	만주와 조선에서 러시아의 동향 파악
1907	Corea, the hermit nation	William E. Griffis	미국	목회자, 일본에서 화학과 지리학 강의	미방문	
1911	Village life in Korea	J. Robert Moose	미국	선교사	1899~1924년 (25년 체류)	조선 시골마을 선교

Ⅲ. 갓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

1. 갓의 전통적 의미

조선 후기의 속담에서 양반을 은유적으로 ‘흑립’, 또는 ‘흑립자(黑笠者: 흑립을 쓴 사람)’라 표현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¹⁴⁾, 이는 ‘갓’과 ‘양반’을 동의어로 사용할 정도로 갓과 양반 신분층이 긴밀하게 연결되

었음을 나타낸다. 조선 사회는 양반, 중인, 상민, 천인의 네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¹⁵⁾ 각 신분 계급에 따라 복식사용의 규정이 있었는데, 갓은 양반과 중인 계층에 국한되어 사용이 허용된 품목이었다. 영조 51년(1775) 내려진 복식 금제령에 의하면 “소위 관건(冠巾), 도포, 당혜와 같은 것들은 선비가 아니면 감히 착용하지 못한다. 말총 모자, 당건(唐巾), 창

의, 사립(絲笠)과 같은 것들도 역시 선비가 아니면 착용하지 못한다.”¹⁶⁾고 규정되어 있다. 즉, 진사(眞絲)를 등사하여 만드는 최상품의 사립 종류는 법적으로 양반만 쓸 수 있는 것이었다. 서인의 사립 착용에 대한 금제는 17세기 문헌에서도 확인되는데, 서인으로서 사립을 쓰는 자에게는 금패(禁牌)를 내어 처벌할 수 있게 했다.¹⁷⁾

상기의 금제령에서 서인의 포립(布笠) 착용에 대한 규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 서인은 어떠한 종류의 후립도 쓸 수 없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었던 듯하다. 진사를 등사한 사립은 당연히 양반의 전용물이었고 천을 덧씌운 포립도 양반의 상복(喪服) 또는 제복(祭服)용 모자였다.¹⁸⁾ 19세기 후반, 양반이 아닌 자가 갓을 쓸 경우에는 봉변을 당할 정도로 갓이 가지는 신분 상징성은 매우 강했다.¹⁹⁾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갓은 크기가 작았지만 19세기 전반 이전에는 양태의 크기가 어깨 너비를 넘길 정도로 매우 넓었으며 총모자도 날씬하고 무척 섬세하게 제작된 것들이 많았다. 비실용적인 거대한 갓을 머리에 쓴 모습은 그 자체로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양반 계층의 특권을 잘 드러내는 것이었다.

갓이 비록 상류계급의 모자였지만 신분 상징의 정도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모자 상단부에 장식된 정자(頂字)나 갓끈을 통해서 세분화된 직급과 부를 나타내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대군은 입식으로 금정자를 사용하며, 정삼품 이상은 은정자를, 삼사의 사헌부 사간원 관원과 관찰사 절도사는 입식에 옥정자를 사용하고, 감찰은 수정정자를 사용한다.”²⁰⁾고 규정되었다. 이 제도는 19세기 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²¹⁾

갓끈의 재료 역시 관직의 품계에 따라 정해진 규정을 따르도록 법으로 규정되었다. 1543년 편찬된 『대전후속록』에는 “마노, 호박, 명박(明珀), 산호, 청금석(靑金石)의 입영은 당상관 외에는 일체 금지한다.”²²⁾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이 규정이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았던 듯하다. 『정조실록』에 “당상관의 갓끈으로는 호박을 사용하는데 근래 사치의 풍습이 성행하여 귀천의

분별이 없으니 당하관의 호박 사용을 일체 금단하고 자마노와 자수정을 대용하도록 하라.”²³⁾는 기록이 보인다. 19세기에 갓끈의 재료는 더욱 다양해져서 대나무로 만든 갓끈이나 천으로 만든 갓끈도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덕무는 “입자에 죽영을 드리우는 것은 간결한 것으로 시골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며 도시에 있을 때는 불가하다.”²⁴⁾라고 했으며, 황현은 죽영에 대하여 “심외, 복건, 치포관과 함께 쓰는 것”²⁵⁾이라 했다. 대나무 갓끈은 주로 재야의 유학자들이 사용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갓의 신분 상징성은 ‘예적 질서의 확립’이라는 유교적 이상의 실천과도 관련이 있었다. 서문에 인용한 바와 같이 최익현은 의복이 “귀천을 나타내도록 한 것”이라 했는데 이는 의복의 신분 표시 기능, 즉 유교적 예의 실천적 의미를 말한 것이다. 조선 후기는 유교 예학 연구가 활성화되고 일상생활에서 예적 질서가 강조되던 시기였다.²⁶⁾ 예적 질서는 상하 귀천의 준비 등급을 구별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었는데, 이는 엄격하게 계급을 나누고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이 분명하면 사람들이 각기 공경하게 되고 사람들 간 관계가 화순하면 서로 친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보는 유교적 이상을 실천하는 문제이기도 했다.²⁷⁾

유교에서 예는 인간사를 조율하는 규범일 뿐 아니라 사회 유지의 준칙이고 세계와 우주 구성의 논리였다.²⁸⁾ 유교에서 예를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귀하고 천함, 어른과 어린이, 가난함과 부유함, 가볍고 무거움의 차별을 두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²⁹⁾ 조선 사회에서 의복은 유교적 이상의 실천이자 사회적 행위의 규범인 ‘예’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그리고 예의 표현은 곧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부위인 얼굴과 머리에서도 행해져야 했다. 선비들의 관모는 자신과 상대방에게 예를 다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나 손님을 맞이할 때나 언제나 갓을 단정하게 착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예의였다.³⁰⁾

갓은 또한 조선 문명의 표상이었다. 양반은 대부분 유학자로서 조선 사회의 지식인 계층이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의복의 진정한 가치는 실용

보다는 표상의 기능에 있었다. 서문에 인용한 최익현의 글은 조선 지식인들의 의복에 대한 유교적 인식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글이다. 의복이 “오랑캐와 중화를 분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의 말에는 동아시아의 중화사상 즉, 화이론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화이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유교 문화를 가진 존재는 ‘중화(즉 문명)’, 그렇지 못하여 힘의 논리나 약탈 경제에 의존하는 이민족은 ‘오랑캐(즉 야만)’로 분류된다.³¹⁾ 유교 문화적 속성의 유무 여부에 근거하여 옷이 문명과 야만을 판가름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명 왕조의 멸망 이후 많은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화 문명이 중국 대륙에서 조선으로 옮겨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³²⁾ 중화의 진정한 후계자이자 주체로서 조선 후기 유학자들이 가졌던 자부심과 사명감은 매우 컸을 것이다. 갓은 양반 신분을 드러내는 표상임과 동시에 유교 문화적 속성을 입은 착용자를 문명인으로 배치시키는 도구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던 것이다.

갓의 의미는 신분 상징과 문명 표상을 넘어 갓이라는 물체와 착용자 자아의 관계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부각되었다. Sontag, Schlater는 “의복은 자아와 함께 있는 것, 또는 자아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의복은 자아가 수립되고 입증되는 외모의 한 측면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개인의 정체성, 기분, 태도의 중요한 상징으로 인정될 수 있다.”³³⁾고 하였다. 갓 역시 자기의 일부로 간주되거나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갓과 착용자 자아와의 근접성은 이덕무의 갓에 대한 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중략) 얼굴에 덮으면 잠깐 잠을 즐기겠고, 옆에 끼고 뛰면 어찌 크게 숨 쉴 수 있겠나, 습기 찰까 두려워 팽팽한 줄에 달아놓고, 때 묻을까 아끼어 갓집을 씌운다.”³⁴⁾라고 하며 휴식할 때 갓을 사용하는 방식과 갓을 아끼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조선의 선비는 갓을 자신과 한 몸체로 여겼으며 지극히 사랑하고 아꼈다. 갓은 착용자의 외관을 유교적 예에 맞게 완성시키는 수단일 뿐 아니라 휴식 시에는 얼굴을 덮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했다. 이는 매우 비공식적이고 편안한 개인적 공간에서의

갓의 역할이었다. 또한 착용자는 갓을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여겨 달릴 때는 갓이 망가질까 봐 숨도 크게 쉬지 않을 정도였고, 보관 시에는 습기 찰까 봐 줄에 매달거나 갓집에 넣는 등 매우 소중하게 간수했다. 갓은 사회적으로는 신분 상징과 문명 표상의 중요한 상징물이었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착용자 자아의 연장선상에 편안하게 함께 존재했던 소중한 물건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이덕무는 “갓을 앞으로 푹 숙여 쓰고 챙 밑으로 남의 기색을 훑어 살피는 것은 떳떳하고 길한 기상이 아니다. 갓을 뒤쳐지게 쓰지도 말고, 끈을 움켜 잡아매지도 말고, 흠이 매지도 말고, 귀에 내려오게 매지도 말라.”³⁵⁾고 경계했다. 갓을 머리 위에 반듯하게 쓰지 않고 뒤로 젖혀 쓰는 모습은 술에 취한 선비, 행실이 반듯하지 못한 ‘노는’ 양반의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이는 양반으로서의 자기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일탈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갓은 때로는 착용자의 정신 상태와 태도를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했다. 갓은 양반 신분의 상징이며, 예의 표현 수단이고, 문명의 표상이었지만, 때로는 착용자의 기분과 느낌, 태도를 대변해 주는 자기 자아의 연장이기도 했던 것이다.

2. 갓의 의미 변화

조선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갓이 지녔던 의미와 가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급변하는 시대 정황에서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변이되어 갔다. 1876년 조선이 개항한 이후 내부적으로 보수 진영과 개화 진영의 첨예한 대립이 존재했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방과 근대화를 지향하고 있었다.³⁶⁾ 1884년 6월의 갑신의회개혁은 근대 국가를 지향한 고종의 개혁 의지를 드러낸 최초의 근대적 복장 규정이었다. 갑신의회개혁은 기존 복식의 간소화를 도모한 것으로서 공복(公服)에 대한 개혁과 사복(私服)에 대한 개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⁷⁾ 공복 개혁의 핵심은 넓은 소매의 흉단령을 좁은 소매의 흑단령으로 바꾸는 것이었고³⁸⁾, 사복 개혁의 주요 내용은 도포, 직령, 창의, 중의와 같이 소매가 넓고 여러 겹 겹쳐 입는 겹옷들을 모두 없애고 착수의(즉 두루마기) 하나로 통일 하는

것이였다.³⁹⁾ 원래 두루마기는 사대부의 경우 실내복으로 입거나 도포 또는 중치막과 같은 외출복의 속에 입는 옷이었으며, 도포 또는 중치막을 입을 수 없었던 상민의 경우 겉옷으로 입는 옷이였다.⁴⁰⁾

이 개혁은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분에 따른 복식 제도의 철폐, 즉 '복식의 평등화'를 지향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양반 계급의 평상복 포의 개혁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 그러나 다양한 광수의의 착수의로의 통일은 양반 계급의 저항을 초래했고⁴¹⁾, 고종은 불과 4개월 후에 기존의 풍속으로 되돌아가는 '의제 복구'를 지시했다.⁴²⁾ 이후 십 여 년 간 광수의와 같은 양반전용의 포들이 계속 착용되었다.⁴³⁾ 광수의에 대한 규제는 1895년 을미의 제개혁에서 다시 나타났다.⁴⁴⁾ 이와 같이 착수의(두루마기)의 착용은 정부의 지속적 권고 사항이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두루마기의 착용은 꾸준한 증가 일로에 있었던 듯하다.⁴⁵⁾

두 차례의 의제개혁에서 갓과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면, 1884년 갑신의제개혁에서 "입영(笠纓)은 협소하게 짜서 쓰되 사(紗) 혹은 백(帛) 혹은 주(珠)를 사용하여 땀 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 남아서 늘어지게 할 수 없다."⁴⁶⁾고 규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갓끈의 길이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갓끈을 배 아래까지 늘어질 정도로 길게 착용하던 기존 풍습을 고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⁴⁷⁾ 1884년과 1895년 두 차례의 의제개혁안에서 갓의 크기에 대한 규정이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회화 자료들은 18세기 후반~19세기 초 최대에 달했던 양태의 너비가 19세기 중반 이후에 서서히 줄어들음을 보여주고 있다. 갓의 크기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혀진 바가 아직 없지만 아마도 불필요한 사치를 혁파하고자 했던 정부의 개혁 정신과 맞물린 변화가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 법적으로 신분 제도가 폐지된 이후 기존의 양반과 중인 이외의 신분층도 갓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상민의 모습은 걸모습만 보아서는 양반과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기존 양반 계급은 다양한 광수포를 포기함으로써 상민 계급에 가깝게 내려왔고 상민 계급

은 갓을 착용함으로써 양반 계급에 가깝게 올라갔다. 1895년 11월 을미의제개혁의 일환으로 단발령이 반포되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조정 상태가 평화롭게 지속되는 듯 했다. 단발령은 을미사변으로 격앙되어 있었던 백성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의병 항쟁으로까지 이어졌다.⁴⁸⁾

한국인에게 머리는 신체의 다른 어떤 부위보다 중요했다. 머리카락은 신체의 일부였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의 일부를 자른다는 것은 '효'를 중시했던 당시의 유교적 가치관으로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양반 계층에게 상투를 자르라는 명령은 갓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갓을 포기한다는 것은 양반의 신분과 문명인의 자긍심을 모두 버리는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자기자아의 중요한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정체성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너무도 중차대한 일이었을 것이다.

단발령을 강행했던 갑오 내각은 1896년 2월 붕괴되었고, 그와 동시에 단발령이 철회되면서 두발 양식은 개인의 의사에 맡겨졌다.⁴⁹⁾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비록 단발령이 철회되었지만 두발 양식이 과거의 상투 머리로 되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⁵⁰⁾ 1895년의 단발령은 처음에 전 국민적 저항이 컸지만 시간이 갈수록 각 부 대신들, 외교관들, 도시민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근대 교육의 정착과 더불어 점차 보편화되어 갔다.⁵¹⁾

단발의 확산에는 개화파 언론의 계몽 활동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독립신문』은 1896년 5월 26일 논설에서 "머리 깎고 양복 하는 것은 집 고친 후에 새로 도배와 장판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며 단발령이 비록 시기상조이긴 했지만 "이 일은 언젠가 되든지 할 것"이라 하며 단발이 근대화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명제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1897년 2월 13일 논설에서는 "무릇 어느 나라의 풍속이나 학문이든지 기존 것 보다 나오면 본 받고, 기존에 옳게 생각하던 것도 오늘날 실상이 없는 일이면 고치고, 기존에 잘못 알았던 것도 실상이 옳은 줄 깨달으면 고쳐 본받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일이요 애국 애민하는 근본"이라 하며 "못된 옛 풍속

을 버리고 문명 진보하는 일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명 진보’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선 문명’에서 ‘서구 문명’으로 나아감이 개화파 지식인들에게 진보의 과정으로 여겨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상투 머리와 갓의 포기는 ‘문명 진보’의 일환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단발의 확산과 더불어 양복과 서구식 모자의 착용도 조금씩 증가되어 갔다.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서구식 테일 코트(tail coat)와 실크 햇(silk hat)을 문관 예복으로 제정했고⁵²⁾, 1900년대 이후 새로 생겨난 모자점과 양복점들은 신문에 양복과 서구 모자를 자주 광고했다.⁵³⁾ 서구 모자가 갓을 대신해 새로운 지위를 부여 받기 시작한 듯 했다. 동시에 상투 머리와 갓은 개화파 지식인과 서구식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점차 구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상투와 갓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제의 조선강제병합 이후 1920년대에 더욱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개벽』 1920년 8월 25일 기사에는 한복, 양복, 일복 등 각종 의장(衣裝)과 수식(首飾)이 혼용되고 있는 당시 풍속을 비판하고 의복 개량을 통해 신흥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는 박춘파의 논설이 실렸다. 또한 1921년 6월 1일, 7월 1일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조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투고하기도 했다.

“본국 계신 부모(父老) 여러분 (중략) 일본도 역시 국외가 아깝니까, 국외의 손님이 되면서 의표(衣表)가 어찌면 그런가요, 우리의 무기력을 왜 그다지 외국인에게 표시할까요, 제발 상투 좀 잘라버리시고 갓 좀 벗어 버리시고 세계식 현대식 보통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조선인으로 조선 고유의 의표로써 만국에 횡행함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빈약의 태가 들어납디다. (중략) 제발 상투 좀 베고 흑립 좀 벗어 주셔요. 이 실로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⁵⁴⁾

이러한 호소문에는 식민지 지식인의 열등감이나 콤플렉스가 반영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상투를 자르고 갓을 벗는 것이 ‘세계식, 현대식, 보통식’임을 강조하는 위의 글에서 일부 젊은 세대의 문명 기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갓이 20세기 초반의 짧은 시간 동안 개화파 지식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루속히 타파해야 할 구태의 상징이 되어 버리긴 했지만, 조선의 노년층 남성들에게 쉽게 포기된 품목은 절대로 아니었다. 1927년 제작된 Norbert Weber 감독의 다큐멘터리 무성 영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Im Land der Morgenstille)’를 보면 일상에서 상당수의 노년층 남자들이 상투머리에 갓을 여전히 착용하고 있다. 『개벽』 1922년 9월 1일 박달성이 쓴 글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동떨어진 지방이나 시골의 고즈넉함 속에서 갓을 쓴 남자의 모습이 ‘검소’하거나 ‘점잖은’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적어도 대도시에서는 갓에 대해 버려야 할 구습이라 주장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컸던 반면 지켜야 할 전통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작았던 듯하다. 이에 대해 Wagner는 자신의 여행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록 우리가 우아하게 흘러내리는 과거의 로브들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애도할지도 모르지만, 미의 애호가들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상투를 애석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외부 영향으로부터 동떨어진 시골사람은 여전히 이 시민권의 배지(badge)를 고수하고 그에게 그것은 옛 질서에 헌신하는 표시로서 중요성이 유지되겠지만, 더 젊은 세대의 남자와 학생은 비록 가끔씩 자신의 국가의 이상을 입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 고대의 흉물(horror)은 경멸하곤 했다.”⁵⁵⁾

상투를 아쉬워하지 않음은 갓을 아쉬워하지 않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과거 갓이 지니고 있었던 신분 상징과 유교적 문명 표상의 지위 등은 20세기 초반과 일제 강점기 초기에 젊은이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자취를 감추어 간 듯하다.

IV. 갓에 대한 서양인들의 인식

1. 외형적 특징 및 예술적 가치 주목

19세기 말~20세 초 많은 외국인들이 조선을 방문했고 그들은 여행기라는 형태의 자료로 조선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이들 외국인들의 기록에서 조선의 풍물이 소개될 때 자주 언급되었던 소재가 바로 갓을 포함한 한국의 모자였다. Lowell이 조선을 ‘모자의

나라(the land of hats)'라 칭하기도 했을 만큼⁵⁶⁾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모자들은 매우 특이한 풍속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외국인들의 여행기에서는 갓의 형태적 특이성 및 용도에 관한 사실적 정보와 함께 서술 주체의 다양한 인식이 발견된다.

조선이 미국, 영국과 정식으로 수교한 해는 1884년이었지만 미국과 영국 사람들에게 조선인의 모습은 이미 그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Illustrated London News』 1858년 4월 24일, 1865년 1월 7일자 지면에는 대우가 높고 양태가 매우 넓은 형태의 갓을 쓴 한국인 관료와 군관, 수행원들의 삽화가 게재되어 있다.⁵⁷⁾ 이들이 쓴 갓은 19세기 말, 갓이 간소해지기 이전의 모습이다. 영국인 의사 Lockhart 역시 조선과 영국의 수교 이전에 본국에 갓을 소개했다. 그는 1860년대에 북경에 머무르면서 북경을 방문한 조선 사절단의 모습을 관찰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사절단의 모습에 대해 “그들은 넓은 테가 있고 크라운이 높은 모자를 쓴다. 이러한 모자는 매우 섬세한 대나무 살(slips)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으며 광택이 있는 검정색이고 말총으로 결합되어진다.”⁵⁸⁾라고 하였다. 그는 갓의 외형적 특징을 묘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조선과 영국의 수교 이후 부영사로서 1880년대 조선에서 잠시 근무했던 Carles의 여행기에는 보다 다양한 조선의 모자가 언급된다. 그는 갓에 대해 “조개어진 대나무 또는 말총으로 짜인 검정색의 원뿔형 모자이며 때로는 귀 앞에 돌출된 날개들(wings)이 있기도 하다.”⁵⁹⁾라고 했다. 갓끈이 달리는 부분의 작은 고리까지 묘사함으로써 Lockhart보다 구체적으로 갓의 형태를 묘사했지만 대우의 상단이 평평해야 하는 갓의 중요한 형태적 특징에 대해 ‘원뿔형’이라 함으로써 불완전한 외형 묘사에 그쳤다. Carles는 다른 저서에서 이 원뿔형 모자를 ‘웨일스여자(Welsh-woman)의 모자’에 비유하기도 했는데⁶⁰⁾, 이러한 비유는 이후 조선을 방문했던 다른 영국인들의 여행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⁶¹⁾ 당시 영국인들에게 갓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인식된 모자가 자국의 웨일스여자 모자였던 것 같다. 갓을 웨일스여자 모자에 비유한 내용은 미국인의 저술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Carles는 조선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적어도 외모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시각으로 조선을 관찰하려고 노력한 듯하다. 갓의 모양을 웨일스여자 모자에 비유한 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유사한 외형의 품목을 찾은 결과로 보인다.

갓의 외형에 대한 기록은 서구식 측정 단위를 사용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술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미국인 외교관이자 과학자인 Lowell은 갓의 지름과 높이를 수치로 기록했으며⁶²⁾, 미국인 선교사 Gifford와 Collyer 역시 갓의 재료와 정확한 크기에 관심을 기울였다.⁶³⁾ 이처럼 갓의 외형 관찰에 있어서 몇몇 미국인들은 과학적 조사자의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Lowell은 고종의 외교 고문 역할을 잠시 수행했지만 원래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다. 과학자로서의 그의 이력이 갓에 대한 조사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두 미국인은 선교사였다. 선교사들은 대체로 오랜 기간(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 수년) 동안 조선에 체류하면서 사목 활동을 했고⁶⁴⁾, 선교를 위해 조선인들의 일상에 가깝게 다가갈 필요가 있었다. Moose가 자신의 책 서문에서 “조선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 나 자신이 대단히 사랑하게 된 조선인들에 대해 독자들이 보다 명확한 지식과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는 데 이 책이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⁶⁵⁾ 라고 밝힌 바와 같이 오랜 기간 조선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선교사들은 외부 세계에 알려진 조선에 대한 지식이 때로 오류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조선에 대한 정확한 사실의 전달을 위해 책을 쓰기도 했다. 과학적 조사자의 태도는 사물과 그 사물의 착용자에 대한 접근 용이성 및 친밀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태도이다.

갓의 외형과 재료의 섬세함에 대한 관심은 때로는 갓의 예술성에 대한 감탄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1890~1901년 조선을 여행했던 영국인 화가 Savage-Landor의 시선은 같은 영국인이지만 정치인이었던 Carles나 Curzon의 시선과는 약간 달랐다. 그는 가느다란 죽사나 말총을 그물처럼 엮어 완성되는 갓을 ‘훌륭한 예술 작품(wonderful work of art)’으로 이해

했다.⁶⁶⁾ 이것은 예술가인 그의 안목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Savage-Landor는 거리의 조선인들과 조선의 풍경들을 스케치하면서 서울에 여러 달 머물렀다.⁶⁷⁾ 스케치를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대상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인 초상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갓을 구체적으로 관찰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섬세한 수공품인 갓에 대한 예술적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술 작품으로서 갓을 보았던 그의 태도는 갓의 수집가들에게 긍정적인 정보로 작용했을 것이다.

2. 사회적 의미 이해

Lowell은 갓의 형태적 특이성과 수집 가치뿐 만 아니라 갓의 사회적 의미도 주목했다. Lowell은 “그 갓(갓)에 의해서 그(갓 쓴 사람)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보다 진실로 동양적 사고에 부합시키자면 가부장적으로 한 남자가 된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⁶⁸⁾ 라고 했는데, 이는 당시 갓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이해였다. 조선 사회에서 소년들은 보통 15~20세에 성년식인 관례를 행했으며 조흔 풍속으로 인해 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관례를 행하는 경우도 많았다.⁶⁹⁾ 양반 가문의 소년들은 관례에서 상투를 올리고 갓을 처음으로 쓰게 됨으로써 신체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성인 남자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영국인 장교 Cavendish도 혼인 이후에 상투를 틀고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을 의미 있게 보았다. 그는 “갑산에서 헤어졌던 우리 마부 가운데 한 사람이 총각이었다. 그는 사십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뺨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는 결혼 상투를 하고 있는 9~10세의 어린이 몇몇을 보았다.”⁷⁰⁾ 라고 말하며 머리 장식의 사회적 표시 기능에 관심을 두었다. 상투와 갓이 가지는 성년과 기혼의 표상은 외국인으로서 가장 포착하기 쉬웠던 갓의 사회적 의미였던 것 같다. Cavendish의 글은 조선의 사정과 일상을 면밀히 살펴보기보다는 자신의 사냥 여정을 기록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⁷¹⁾ 그는 휴가 차 조선을 방문했고, 사냥과 등산이라는 방문 목적에 따라 주로 산과 들로 이동했기에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마을에서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이 고작이었던

데, 그 가운데서 머리 장식은 그의 기억에도 남았을 만큼 특이한 조선의 풍경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1886~1889년, 육영공원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미국인 Gilmore는 갓의 의미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갓이 기혼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존경의 표시(mark of respect)’임을 알고 있었다.⁷²⁾ 그가 왕립학교의 교사였으므로 그의 학생들은 주로 상류층 자제들이 많았을 것이다. 학생들과의 대면 과정에서 ‘예의 표현’이라는 갓의 전통적 의미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Gilmore는 “다른 형태의 모자들이 다른 계급의 사람들에 의해 착용된다.”라고 했는데⁷³⁾, 이는 그가 조선 모자의 신분 상징성을 어느 정도 이해했음을 알려 준다. 영국인 정치가 Curzon도 갓의 섬세한 재료와 함께 그것의 신분에 따른 차등을 언급한 인물이다. 그는 갓의 차등에 대해서 “상류층은 짚겨어진 대나무 섬유를 엮어 검정색으로 옷칠한 것이며, 하류층은 같은 재료가거나 말총으로 된 좀 더 저렴한 것들이다.”⁷⁴⁾ 라고 말했다. Moose 역시 “그의 모자는 그의 하인이 쓴 것과 같은 스타일인데 좀 더 섬세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⁷⁵⁾ 고 하며 신분에 따라 재료가 다름을 주목했다.

외국인 저자들은 때로는 화려한 보석으로 만든 갓끈을 관찰하기도 했다. Curzon은 “그 바깥의 모자는 리본 또는 호박과 홍옥 구슬로 만든 끈으로 턱 아래에서 고정된다.”⁷⁶⁾ 라고 말했고, Gilmore는 “리본 대신에, 아름다운 호박이나 거북 등껍질 구슬 줄”⁷⁷⁾ 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록들은 저자들이 조선의 고위 관료층의 편복 차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신분의 외국인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3. 한국인 외모 및 국민성과의 연계

갓에 대한 서술은 때로는 한국인의 외모와 연결되기도 했다. 영국인 여성 여행가 Bird Bishop은 “비록 평균 키는 5피트 4와 1/2인치(5 feet 4 1/2 inches)에 불과하지만 그의 옷은 부피감이 있어서 그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그의 크라운이 높은 모자, 이것 없이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데, 역시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⁷⁸⁾ 라고 말하며 두루마기와 갓이

착용자의 외관에 기여하는 바를 지적했다. 미국인 Malcolm Keir 역시 “남자들의 키는 크라운이 높은 말총 모자와 험령한, 흐르는 듯 하는 옷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⁷⁹⁾라고 하며 갓이 두루마기와 함께 한국인의 키를 커 보이게 하는 사실을 언급했다.

박지향은 Bird Bishop의 여행기를 식민주의와 여성성의 상충하는 담론 사이에 끼여 있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여성 여행기 작가들은 커다란 주제들을 서술의 중심에 두지 않으며 이국인들과의 접촉에서 ‘개인’으로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대체로 덜 권위주의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⁸⁰⁾ Bird Bishop의 여행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커다란’ 주제보다는 결혼식이나 부부 관계 등 좀 더 사적인 측면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⁸¹⁾ 이러한 여성적 관심이 두루마기와 갓이 한국인의 신장 증대에 기여하는 바를 포착하게 만든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갓이 신장 증대의 착시 효과에 기여한다는 평가와는 별도로, 일부 외국인들은 때때로 갓 그 자체와 갓을 쓴 한국인의 외모에 대해 조롱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1870년대 일본에 체류하면서 동양학을 연구했던 미국인 Griffis는 갓의 형태와 갓을 쓴 조선인의 외모에 대해 “그 너비로 보면, 이 모자는 아마도 ‘지붕’, 또는 적어도 ‘우산’으로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지름은 너무 커서 그들 중 하나에 놓여져 있는 사람 머리는 마치 수레바퀴에 있는 중심처럼 보인다. 그것들은 아마도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릴 때 낙하산으로서도 훌륭히 기여할 것이다.”⁸²⁾라고 표현했다. 갓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것은 숫자로서 기여한다. 한 무리는 머리카락 대신에 모자에 의해 숫자가 세어진다.”⁸³⁾라고 했는데 이는 갓의 진정한 기능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갓이 조선을 대표하는 품목이며 조선의 상류 계급의 전유물임을 알고 있었다. 이는 갓의 용도에 대한 다음의 기록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죽음 이후에 그것은 장엄하게 상여위에 놓이며 장례식에서 눈에 잘 띄는 물건이 된다. (중략) 정말로, 한국의 그 우산은 세속적 사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와 존엄의 상징이다. 그리고 종종 knob(작은 둥그란 손잡이)과 끈(strips)으로 장식된다. 제주도는 모자장인들의 고

향이다. 그들의 패셔너블한 상품들은 수도(서울)와 반도의 멋쟁이들과 고위관리들에게 공급된다.”⁸⁴⁾

Griffis는 갓이 조선이라는 나라와 존엄의 상징이며 사후에 관 위에 올려 질 정도로 착용자에게 소중한 물건임을 알고 있었다. 갓의 주요 생산지까지 언급할 만큼 갓에 대해 식견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갓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조선에 대한 그의 저서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주로 일본 측 사료에 의거하여 쓴 기록이었다.⁸⁵⁾ Griffis의 서술에서 드러나는 갓에 대한 폄하의 태도는 당시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폄하의 태도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어로 발간된 언론 매체의 논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⁸⁶⁾ 일례로, 『太陽』 1895년 4월 5일자에 실린 이와모토 요시하루의 논설에 의하면, “조선인은 독립심이 결핍되고, 무(武)의 정신이 부재하며, 근검절약의 덕이 부족하고, 경박하고 무기력하며, 인내의 기질이 부족하며, 허언과 수사와 위선이 과다하다.”고 하였고 이것을 ‘문약(文弱)’으로 표현하였다.⁸⁷⁾ 이와모토는 이러한 근본 원인으로 유교를 지목하며 조선 국민의 중국 숭배를 문제로 삼았고, 또한 조선의 중국 숭배의 자리에 일본 유교가 들어서야 함을 강조하였다.⁸⁸⁾

김종식은 이와모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아시아 유교질서의 중심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왔음을 강조함으로써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질서를 천명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⁸⁹⁾ 일본 정부는 1910년 한국강제병합 이후 더욱 본격적으로 한국 유교에 대한 식민주의적 계몽 담론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이 주제에 관한 정일균의 연구에 의하면, 1910년대 조선어 일간지인 『매일신보』의 논설에서 ‘유교계의 폐습에 대한 비판 및 개혁론’과 관련된 기사는 약 59편에 해당하며, 이를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유교론 일반’, ‘유생에 대한 경고’, ‘유교계의 폐단에 대한 비판’, ‘유교 개혁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⁹⁰⁾ 정일균은 일본이 강조했던 부분은 특히 한국 유교의 사상적 정체성과 종속성, 사상적 퇴행성과 완고성, 당파성 등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유교 망국론’이 형

성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⁹¹⁾

일본인들은 조선에 대한 왜곡된 인식 생산 작업에 때로 서양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김청균의 연구에 의하면, 『朝鮮公論』 1920년 11월호에 실린 '미국인이 본 조선인'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조선인은 게으름뱅이, 불결한 자, 부정직한 자, 배려심이 없는 자, 도덕적 정신이 전혀 없는 자, 공공 의식이 결여된 자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한다.⁹²⁾ 김청균은 "이 에세이에 소개되는 조선인상은 가히 어떤 민족에 대한 이미지로는 최악의 것이라 할 만하다."고 했으며 "이런 종류의 글은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의 글인 듯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조선 통치를 옹호하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평가하였다.⁹³⁾

갓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미국인 Jenings의 저서에서도 발견된다. 이 책에서 그는 갓을 "한국의 국가모자(the national hat of Korea)"로 소개하고 있으며, 재료와 크기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갓의 유래를 간략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양태가 넓었던 갓이 유행했던 이유에 대해서 "음모자들이 서로 소곤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뾰뚱한 양태를 두어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⁹⁴⁾고 기술하며 전혀 검증되지 않은 설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이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한국인의 국민성을 나타낸다."⁹⁵⁾고 하며 갓의 넓은 양태와 한국인의 국민성을 연결시키고 있다.

1904년 만주와 대한제국을 방문했던 영국인 기자 Whigham 역시 한국인의 외모에 대해 경멸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험렁한 흰색 로브를 입고 있고 넓고 평평한 테와 턱 아래에 리본이 있는 우스꽝스러운 말총 모자를 쓴 한국인을 보자면, 그리고 소처럼 응시하는 모습과 듬성듬성한 수염이 있는 흔들거리는 턱을 고려해 볼 때, 당신은 그를 퀘이커 교도(a Quaker)와 상냥한 염소의 중간쯤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⁹⁶⁾라고 하며 갓을 쓴 조선인의 모습을 기이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갓의 진정한 의미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갓 쓴 조선인을 사람과 동물의 중간쯤 되는 우스꽝스럽고 특이한 존재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Whigham은 20세기 초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지지했던 인물로, 그는 당시의 세계정세를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로 파악하고 있었다.⁹⁷⁾ 1898년부터 중군기자로 활동해 온 그가 1901년 만주 지역을 방문했던 이유는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움직임에 파악하기 위해서였다.⁹⁸⁾ 그는 만주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팽창주의 정책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영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⁹⁹⁾ 그는 조선 황제와 관료들의 무능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조선(당시는 대한제국)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¹⁰⁰⁾ 그는 또한 조선의 유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다음의 글에서 잘 드러난다.

"조선인은 천 년 전 중국인의 창백한 유령을 닮았다. 그들은 중국인보다 더 자신들의 조상을 숭배하고, 공자보다 더 철저한 유학자이다. (중략) 어떤 이들은 유교에 부합하는 곳이 중국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완전히 꿈쩍달걀 못할 정도로 유교에 가장 부합하는 곳은 조선이다. 그러나 조선의 관습이 아무리 무쇠처럼 단단하다고 해도 조선은 중국보다 더 빨리 외부 세계의 문명에 굴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과 같은 생명력이 부족한 데다, 외세를 몰아내야 한다는 의식마저 점차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다."¹⁰¹⁾

이러한 그의 인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인들의 주장과 매우 닮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식민주의¹⁰²⁾ 시대 서양인의 텍스트에서는 전반적으로 동양 문명에 대한 서양 문명의 우월성이 내포된 식민주의적 인식과 태도가 많이 발견된다.¹⁰³⁾ 예컨대 1892년 조선을 방문했던 영국 정치인 Curzon도 스스로를 '제국주의자'¹⁰⁴⁾라 불렀을 만큼 식민주의 가치관을 확고히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갓에 대한 Curzon의 인식과 태도에서는 우월성이나 의도적 비하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갓의 핵심적 특징만을 묘사했다. 이는 그의 주요 관심사가 조선인의 외모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가 자신의 책 서문에서 밝혔듯이 그의 관심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것으로 보다 더 거시적인 문제였다.¹⁰⁵⁾

Whigham의 갓에 대한 인식은 Curzon과 달랐다.

Whigham이 갓과 갓을 쓴 조선인을 비하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Curzon보다 더 강력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두 영국인의 조선 방문 시기의 차이도 주목할 만 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갓에 대한 경멸적이고 배타적인 태도가, 적어도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로는, 1904년 이후에 출간된 저서들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1904년 이전 조선을 직접 방문했던 서양인들의 여행기에서는 갓을 쓴 조선인에 대한 경멸적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1904년은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확고한 권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던 해였다.¹⁰⁶⁾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은 일본의 패권 앞에 무력했으며 유럽은 생각보다 강한 일본의 군사력에 놀라고 있었다.¹⁰⁷⁾ 영국과 일본은 1902년 이미 동맹을 체결한 상태였고 영국은 공식적으로 일본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¹⁰⁸⁾ 러시아를 견제할 방책으로 영국과 일본의 동맹 및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세력 강화를 주장했던 Whigham이 자신의 식민주의적 시각에 조선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더해 조선인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서양인들에 비해 조선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일본은 갓에 대한 조롱이 조선 지식인과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조롱으로, 그리고 이는 곧 조선 유교와 조선 문명에 대한 비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었던 듯하다. 일본은 식민주의 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갓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했던 일부 영국인과 미국인들은 조선의 갓, 혹은 갓 쓴 조선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일본식 식민주주의의 담론 내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한국의 갓은 시대적 맥락에서 유동적 의미를 지녔던 사회문화적 표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조선의 갓은 상류층의 신분 상징물이었고 예적 질서의 실천적 표현 도구였으며 조선 문명의 상징이었고 또한 착용자의 기분과 느낌, 태도를 대변해 주는 자아의 연장으로서 고귀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갓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시기,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구태', 또는 '구식'과 연관된 또 다른 의미로 변질되어 갔다.

조선을 방문했던 서양인 관찰자들에게 갓은 가장 한국적이고도 특이한 물건이었다. 갓의 특이한 외형과 재료의 섬세함에 대한 관심은 때로는 갓의 예술성에 대한 감탄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양인들 가운데 일부는 갓의 중요한 사회적 용도를 이해하기도 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갓은 한국인의 외모나 국민성과 연계되어 인식되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갓에 대해 이해했던 내용 대부분은 조선인들이 갓에 부여해왔던 전통적 의미들과 거의 관련이 없었다. 또한 19세기 말~20세기 초 격변의 시대에 이미 변질되고 있었던 갓의 의미와도 동떨어진 것이었다. 오히려, 당시 한반도에서 패권을 장악했던 일본의 식민주의 담론을 따라서 갓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었다.

일제의 식민 지배 이후 갓을 쓴 조선인은 비록 야만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문명진보에 발맞추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존재로 더욱 전락해 갔다. 이러한 상황이 조선인의 주체적 시대 인식과 상황 파악에서 비롯된 내부적 변화인지, 아니면 일제의 식민주의 담론 확산에서 비롯된 의도된 결과인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어쩌면 두 가지 기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갓', '갓을 쓴 조선인', '조선이라는 나라'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갓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문명'과 상관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구태', 또는 '구식'과 상관을 가지기도 하면서 '조선적임'의 성격을 규정해나갔다. 이러한 성격의 규정에 조선인들과 일제 식민주의자들, 그리고 외국인 관찰자들이 제각기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역할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1) 최익현 (1977), *편암집 1*,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140.
- 2) 국사편찬위원회 (2000), *한국사 40*,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pp. 281-306.
- 3) 이경미 (2012), *제복의 탄생: 대한제국 서구식 문관대*

- 레복의 성립과 변천, 서울: 민속원, pp. 142-150.
- 4) 국사편찬위원회 (1999), *한국사 42*,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pp. 165-220.
 - 5) 착용연대가 오래되었거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대표적 종류들이 국립민속박물관과 온양민속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영국의 the Museum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in Cambridge와 the Horniman Museum in London, 미국의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와 the Brooklyn Museum in New York, 프랑스의 the Guimet National Museum of Asian Arts, 독일의 the Museum of East Asian Art in Cologne, 러시아의 the Peter the Great Museum of Anthropology and Ethnography 등 국외의 박물관에도 많이 소장되어 있다.
 - 6) Lowell, P. (2000), *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서울: 경인문화사, p. 335.
 - 7) Carles, W. R. (1894), *Life in Corea*, New York and London: Macmillan and Co., p. 34.
 - 8) 이은희 (1986), 조선조 흑립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장경희 (2001), *갓알*, 서울: 화산문화.
 - 10) 박형박 (2006), 조선시대 입(흑립)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김이든 (2007), 개항이후 남자 모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최재영 (2011), 서양인이 본 조선말기 남성 모자: 강화도조약 체결에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1876~1910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서양인이 쓴 민속 문헌 해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14) 흑립과 관련된 속담으로 “범은 흑립을 쓴 사람에게 시행하기 어렵다.”(*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1724) 10월 10일), “소작을 주는 지주들은 노비, 친구, 흑립에게 주지 말라.”(*성대중* (2006), *구역 청성잡기*, 김종태 외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276.)와 같은 표현이 있다. 이러한 속담들은 법적으로 특혜를 누리거나 양인들에게 전횡을 가한 양반들을 풍자한 것이다.
 - 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한국사 34*,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p. 13.
 - 16) *승정원일기* 영조 51년(1775) 1월 9일
 - 17) *비변사등록* 현종 11년(1670) 12월 29일 禁制條件: 속종실록 속종 14년(1688) 4월 4일 三司禁制節目別單
 - 18) 송준길(1602~1672)의 『동춘당집』에 “오늘날 세속에 상복을 입는 자들은 반드시 흑칠포립을 쓰네. 나도 연전부터 부모의 기제 때 이런 것을 쓰고서 제사를 지내네만 어떤지 모르겠네.”라고 물으니 ‘흑포립의 제도는 이곳에서도 준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송준길* (2003), *동춘당집 4*,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291.)는 기록으로 보아 17세기에 이미 흑포립이 선비들의 상복 또는 제복 모자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성왕후 국상에서 고종이 착용한 상복을 보면, 공제(公除) 전 연거복으로는 백포의와 백포립, 공제 후 연거복으로는 백포의와 흑포립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종실록* 고종 32년(1895) 10월 21일)
 - 19) 김구(1876~1949)는 어린 시절 양인으로 몰락한 자기 집안의 조부가 말총갓을 쓰고 나갔다가 양반들에게 발견되어 갓이 찢기는 봉변을 당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김구 (2008), *백범일지*, 배경식 역, 서울: 너머북스, p. 52.)
 - 20) *경국대전* 예전 의장조
 - 21) *대전통편*, *대전회통* 예전 의장조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 22) *대전후속록* 예전 금제조
 - 23) *정조실록* 정조 15년(1791) 4월 18일
 - 24) *청장관전서* 士小節 1 服食
 - 25) 황현 (2005), *매천야록 1*, 임형택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 243-244.
 - 26) 이경미 (2008), 대한제국의 서구식 대례복 패러다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3-24.
 - 27) *Ibid.*, p. 23.
 - 28) 최문형 (2010), 조선 예학사상의 근대적 해석에 관한 소고: 호르크하이머의 사회철학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64, p. 110.
 - 29) *Ibid.*, p. 114.
 - 30) 이익 (1982), *성호사설 3*,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30; 황현(2010), *매천집 1*, 임정기 역,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pp. 76-77.
 - 31) 이경미 (2008), *op. cit.*, p. 18.
 - 32) *Ibid.*, p. 20.
 - 33) Sontag, M. S. & Schlater, J. 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1), pp. 1-8.
 - 34) 이덕무 (1997), *청장관전서 2*,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숲, p. 203.
 - 35) 이덕무 (1981), *생활의 예절: 士小節*, 이동희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31.
 - 36) 김재엽 (2006), *100년 전 한국사: 개항에서 한일합방까지*, 파주: 살림, pp. 85-93.
 - 37) 이경미 (2012), *op. cit.*, pp. 127-130.
 - 38) *고종실록* 고종 21년(1884) 윤5월 24일
 - 39) *고종실록* 고종 21년(1884) 윤5월 25일, 6월 3일 私服變通節目
 - 40) 최남선 (1973), *조선상식문답: 조선상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 역, 서울: 현암사, p. 219.
 - 41) 이에 대해서는 이경미 (2012), *op. cit.*, pp. 131-135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 42) *고종실록* 고종 21년(1884) 10월 21일
 - 43) 황현 (1994), *매천야록*, 김준 역, 서울: 교문사, p. 164.
 - 44) *고종실록* 고종 22년(1895) 8월 10일 朝臣以下服章式
 - 45) 황현 (2005), *op. cit.*, p. 435.
 - 46) *고종실록* 고종 21년(1884) 6월 3일 예조에서 만든 私服變通節目 “笠纓用狹小織組, 或紗或帛或珠, 足以固結, 無得垂餘”
 - 47) 신윤복의 『해원전신첩』에서 양반들이 배 아래까지 길게 늘어진 갓끈이 달린 갓을 쓴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 48) 김재엽, *op. cit.*, pp. 188-189.

- 49) 김어진 (2003), 문명 표준으로서의 두발 양식: 1895년 조선 단발령의 국제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5-116.
- 50) *Ibid.*, p. 116.
- 51) *Ibid.*, p. 117; 목수현 (2010), 욕망으로서의 근대: 1910년~1930년대 한국 신문광고의 신체 이미지, *아시아문화*, 26, p. 8.
- 52) 이경미 (2008), *op. cit.*, p. 138.
- 53) 목수현, *op. cit.*, p. 8.
- 54) *개벽* 1921년 6월 1일, 7월 1일 '여쭙 말씀 있습니다.'
- 55) Wagner, E. (2001), *Korea: the old and the new*, 서울: 경인문화사, p. 64.
- 56) Lowell, *op. cit.*, p. 392.
- 57) 김장춘 (2008), *세밀한 일러스트와 회귀 사진으로 본 근대 조선*, 파주: 살림, p. 13.
- 58) Lockhart, W. (1866), Lockhart's Notes on Pecking and its Neighbourhood,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36, p. 131.
- 59) Carles, W. R. (1886), Recent Journeys in Korea, *Proceedings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and Monthly Record of Geography, New Monthly Series*, 8(5), p. 294.
- 60) Carles (1894), *op. cit.*, p. 2.
- 61) Curzon, G. N. (1894), *Problems of the Far East, Japan-Korea-China*,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p. 131; Savage-Landor, A. H. (1895), *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London: William Heinemann, p. 51.
- 62) Lowell, *op. cit.*, p. 336.
- 63) Gifford, D. L. (2004), *Every-day life in Korea*, 서울: 경인문화사, p. 46; Collyer, C. T. (1904), About Korea, *The Geographical Journal*, 23(4), p. 486.
- 64) Gifford, D. L. (1995), *조선의 풍속과 선교*, 심현녀역,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역자 서문.
- 65) Moose, J. R. (1911), *Village life in Korea*, Nashville, Tenn. and Dallas, Tex.: Publishing House of the M. E. Church, South, Smith and Lamar, Agents, Preface p. 5.
- 66) Savage-Landor, *op. cit.*, p. 51.
- 67) *Ibid.*, p. 63.
- 68) Lowell, *op. cit.*, p. 338.
- 69) 이은주 (2006), 상징과 의미가 가득한 의례복,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국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두산동아, p. 181.
- 70) Cavendish, A. E. J. (2001),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서울: 경인문화사, p. 143.
- 71) *Ibid.*, p. 7.
- 72) Gilmore, G. W. (2012), *Korea from its capital: with a chapter on missions*, SC: Nabu, p. 136, 142.
- 73) *Ibid.*, p. 141.
- 74) Curzon, *op. cit.*, p. 131.
- 75) Moose, *op. cit.*, p. 102.
- 76) Curzon, *op. cit.*, p. 132.
- 77) Gilmore, *op. cit.*, p. 139.
- 78) Bird Bishop, I. (1970), *Korea and her neighbor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p. 26.
- 79) Malcolm Keir, R. (1914), Modern Korea, Part II, *Bulletin of the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46(11), p. 829.
- 80) 박지향 (2001),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이자벨라 버드 비숍과 조지 커즌의 동아시아 여행기, *안과 밖: 영미문학연구*, 10, pp. 306-307.
- 81) *Ibid.*, p. 308.
- 82) Griffis, W. E. (1907),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p. 271-272.
- 83) *Ibid.*, p. 272.
- 84) *Ibid.*, p. 272.
- 85) 김동진 (2010), *파란눈의 한국혼 헬버트*, 서울: 참좋은친구, p. 155.
- 86) 이 주제에 관해서 다수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강동진 (1982), *일제 언론계의 한국관*, 서울: 일지사; 이규수 (2006), 한국강점 직후 일본 지배계층의 조선 인식-잡지 太陽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4, pp. 153-181; 김종식 (2008), 1895-1896 太陽을 통해서 본 일본의 조선인식, *사람*, 31, pp. 167-187; 김청균 (2011), 일본어잡지 조선공론(1913-1920)의 에세이와 한국인식, *한림일본학*, 18, pp. 101-119 등이 대표적이다.
- 87) 太陽 1895년 4월 5일 이와모토 요시하루의 '조선국 교육 大方針의 儀' (김종식, *op. cit.*, p. 172. 재인용)
- 88) 김종식, *op. cit.*, p. 172. 재인용
- 89) *Ibid.*, p. 173.
- 90) 정일균 (2011), 일제의 식민통치와 식민주의적 근대지식의 형성: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조선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1, pp. 169-170.
- 91) *Ibid.*, pp. 172-175.
- 92) 1920년 11월, *朝鮮公論* 제8권 제11호 64항에 실린 渡辺洞雲의 '미국인이 본 조선인' (김청균, *op. cit.*, pp. 110-115. 재인용)
- 93) 김청균, *op. cit.*, p. 113, p. 115.
- 94) Jenings, F. H. (1904), *Korean head dresses in the National Museum*, Washingto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p. 151.
- 95) *Ibid.*, p. 151.
- 96) Whigham, H. J. (2001), *Manchuria and Korea*, 서울: 경인문화사, pp. 184-185.
- 9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op. cit.*, p. 76.
- 98) Whigham, H. J. (2009), *영국인 기자의 눈으로 본 근대 만주와 대한제국*, 이영욱 역, 파주: 살림 출판사, 역자 서문 p. 9.
- 99) Whigham (2001), *op. cit.*, p. 205, p. 216.
- 100) *Ibid.*, p. 216.
- 101) *Ibid.*, p. 185.
- 102)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개념은 현재 매우 불분명한 상태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둘의 구분에 대한 박지향(2000)의 견해를 소개하면, 식민주의는 식민지(colony)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근대적 의미에서는 다수 원주민과 외부로부터 온 소수 침입자 사이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의미한다. 즉, 하나의 독립

국가가 그 국가에 속하지 않는 한 지역을 복속시키고 관리를 파견하여 그 지역 주민들을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제국주의는 식민주의보다 더욱 일반적이고 광의의 개념이다. 제국주의의 핵심은 다른 집단에 의한 민족이나 인종의 통제이다. 그 통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통제이지만 공식적인 영토적 지배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제국주의는 식민주의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박지향 (2000),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13-22.)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제국주의의 개념은 식민주의와 구분 없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 것이다.

- 103) 박지향 (2001), *op. cit.*, p. 298.
- 104) *Ibid.*, p. 306.
- 105) Curzon, *op. cit.*, Preface p. 7.
- 106) 국사편찬위원회 (1999), *한국사 42*,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pp. 165-200.
- 107) *Ibid.*, pp. 200-220.
- 108) *Ibid.*, pp. 183-197.